

‘주5일 근무’ 확산 바람

작년보다 2배 늘어 서울지역 의약·전기·전자업체서 선호 생산성 향상·작업손실율 감소로 큰 효과

최근 들어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는 업체가 크게 늘고 있다.

또 주5일 근무제 실시 이후 대부분 업체가 생산성 향상, 작업손실율 감소, 근무태도 향상, 물자절약 등 경영면에서 큰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노동부가 6월 한달동안 전국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10인 이상 업체 7만3천5백62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밝혀졌다.

3일 노동부에 따르면 6월말 현재 주1회 이상 5일제 근무를 실시하는 업체는 모두 2백8개 업체로 지난해 6월말의 97개 업체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는 것이다. 지난 73년 경기도 시흥의 삼아약

품(주)에서 최초로 실시된 뒤 꾸준히 증가를 보여왔던 주5일제 근무 실시업체는 85년부터 급격히 늘기 시작, 올해는 지난 3월29일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 등의 영향으로 4월1일 이후만도 93개 업체나 증가했다.

아직까지는 실시업체의 94% 이상이 1천명 미만의 중소기업체에 편중돼 있으나 올 들어 대기업체의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1천명 이상 대기업 가운데 주5일 근무제 실시 업체는 대우자동차, 한국IBM, 대교문화 등 3개 업체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삼성전관, 백산전자, 대우정밀 등 9개 업체나 늘어 대기업

실시업체가 지난해보다 4배의 증가를 보였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그러나 주5일 근무제 실시업체는 업종별로는 의약(30.0%), 전기·전자(20.7%) 업체에, 지역별로는 78.8%가 서울·경인지역에 집중돼 있어 업종·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주5일 근무제 실시 이후 대부분 업체가 생산성 향상, 작업손실율 절감, 출근율 상승 등 기업경영면에서 큰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7년 4월부터 실시한 한국담배인삼공사 원주공장의 경우 5일제 근무실시 이후 1인당 생산량이 7천3백50본에서 1만650본으로 36.8% 증가했으며 작업손실률도 46.3%에서 37.65%로 1

0% 포인트 가량 떨어졌다.

또 서울 강남구에 있는 무역외공업체인 웨스코리아(주)는 출근율이 실시전 95%에서 98%로 증가했으며 유류소비량이 4천5백ℓ에서 4천ℓ로, 전기사용량이 4만2천kw에서 3만7천kw로 줄어드는 등 큰 물자절약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안산에 있는 전자업체인 (주)한독의 경우도 주5일 근무 실시후 작업손실률이 25%에서 24%로 1%

포인트 줄고 출근율도 93%에서 94%로 늘어나는 등 경영면에서 큰 효과를 보고 있다.

한편 노동부가 주5일 근무제와 함께 1백명 이상 업체 8천3백81개 업체를 대상으로 처음 실시한 정년제 조사에서는 대부분 업체의 정년이 55~59살(79.4%)이며 60살 이상도 7.4%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이번 조사결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앞으로 매년 주5일 근무제 및 정년제에 대한 조사를 통해 기업주에게 작업시간 단축과 정년연장에 대한 긍정적 이해를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남해·서해남부 태풍주의보

중앙기상대는 12호 태풍 몰라(LOLA)가 제주도 서남쪽으로 접근함에 따라 3일 오후 2시를 기해 제주도와 남해 일원에, 오후 9시를 기해 서해남부 전해상에 대한 태풍주의보를 발표했다.